

자유율법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 몸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신문

창간 정신

- 영생대도의 실천
- 영생학의 보급
- 영생문화의 창달

1985년 1월 18일 창간 隔週刊 제 804호

The Seungni Shinmun

2020년 4월 1일 수요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시편 50편 15절)

殺魔光線 살마광선 즉 이슬성령으로 사스 괴질 막은 사례 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종교계에서 또 다른 큰 이슈 거리가 된 것은 신중종교의 이모 교주와 함께 입에 오르내리는 '이긴자'라는 명칭이다. 한 글번역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에 표기되어 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세상 말이 있는데, 아마도 유종의 미로 장식하는 주인공을 그린 다수의 소설에서 기인했으리라. 성경에도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다 도둑이며 강도이다(요한복음 10장 8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실로 진짜 이긴자 구세주가 드러나려고 하니까가 진짜 이긴자가 세상에서 먼저 판치고 흑세무민하는 마귀 역사를 하는 것이다. 이참에 진짜 이긴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승리제단 단상에서 이긴자께서 설교하던 항상 이슬성령이 내린다 (아시아 26:19, 요엘 2:29-30)

이슬성령을 부여주는 구세주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 2003.6.4. 이긴자 조희성님 말씀(승리신문 제235호 3면 기사 발췌) 구세주께서 최없이 7년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지 약 2년 만에 사스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를 TV, 신문 매체를 통해서 비난하고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오랫동안 집어넣었으니 사스 괴질도 많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쓸 거야' 하고 냉담하게 굴 수 있겠다. 그러나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여기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라는 자유율법을 선포하신 구세주 장본인은, 몸소 자유율법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본보기로 밤마다 피를 토하는 인류의 죄담당의 수고를 하시면서 사스 괴질을 막으셨다.

를 없앤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을 내다보시고, 동갑내기 신미생(1981년 생)이면서 얼굴 생김새와 몸집도 판박이로 닮은 고르바초프를 내세워 공산주의를 없애는데 앞장서게 조종하였다고 구세주께서 설명하셨다.

으로 잘 알려진 제3선양촌 가장 단상에서 하나님의 신을 모신 박태선 장로님께서 1980년 칠월 칠석(양력 8월 17일 일요일)에 "마지막에 인간 중에 이긴자를 통하여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린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이긴자'라는 용어가 고유명사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계속해서 1980년 8월 23일에는 "이긴자가 아니면 역곡(驛谷)에 끌어와 자가 없애!"라고 영모님이 가장 단상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긴자가 30일씩 금식기도를 열네 번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거했는데, 유사 이래 3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아니하고 열세 번째에는 자갈 위에서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열네 번째에는 유리 칼날 위에 땀살의 정강이로 무릎을 꿇은 채 3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행한 분은 오직 조희성님 뿐이다. 이 밖에도 영모님의 설교 테이프에서 '이긴자'를 증거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죽음의 사선을 넘은 자가 곧 이긴자요, 인간이 이긴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고 마귀를 사망권세를 이긴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하여 신중종교의 교주에게 따라붙는 자칭 구원자로서 '이긴자'라는 칭호가 세간에 이목을 끄는 이슈(issue)가 되었다. '이긴자'는 띄어쓰기 맞춤법에 맞게 쓰면 '이긴 자'라고 표기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긴자에게 전부 오게 되어 있어."(1980년 10월 22일), "이긴자의 이슬성신은 마귀 권세 박살시킬 수 있는 신(神)이다."(1981년 2월 7일),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는 사람은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그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는 이슬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다. 마지막 결말을 짓는 열쇠를 가진 자인 것이다."(1981년 9월 21일)

마귀가내로 떴스는 아이처럼 인류의 엄마에게 매달려 보나

전라도 정읍 노인네 분들은 농사철이 되어 가을이 되면 눈이 모를 내지 못할 때면, 꼭 이긴자 정도령님께 비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면 어김없이 비가 쏟아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승리제단 신도들은 지렁이 같은 아굽의 심정으로 구세주 하나님께 간구(懇求)해야 할 것이다.

지난날 이긴자께서 사스 괴질을 막으셨다고 폭로(?)하고 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꺾겨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긴자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현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셔야만 '이긴자'는 희생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체근해본다.* 박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0>
"조금씩 영생체로 변하고 있다"

제단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너무 방정맞게 조금씩 생각하지 마라. 1년, 2년 이 길을 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라는 의식이 죽는 것이다. 매일같이 제단에 나오면 조금씩 조금씩 영생체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생미 특별한 이 사람으로부터 감로수인 이슬

이 쏟아지므로 매일 이슬을 먹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선해지는 것이다. 생미특별을 만난 이상, 언젠가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이슬을 먹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변화가 되어 죽지 않는 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내 생명과 건강 지킴이, 백혈구

한 나라의 안전과 조국수호는 국가의 국방력 여하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인구가 많다고 우쭐해도 적의 막강한 공격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국방력이 없다면, 일본의 총칼 앞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힌 조선처럼 위태한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혈구의 수와 면적력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몸 안의 혈액이 부족하거나 혈액이 비정상화되어 군대가 되는 백혈구의 수와 세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늘날의 코로나19에게 쉽게 공격당하게 됩니다.

나라의 안전과 수호는 국방력이 좌우하듯이 우리 몸 안에는 백혈구라는 강한 군대가 있어서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여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습니다. 백혈구(白血球)는 적혈구와 달리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서 혈액 1㎖ 내에 약 4,000~10,000개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이들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죽이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백혈구는 위쪽으로 아메바 운동을 하면서 혈관벽을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혈관벽의 세포 틈 사이를 통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백혈구의 군사들을 소개하자면 과립구, 단구, 림프구로 이들은 막강한 조직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립구는 세균이 침입하면 곧장 그 곳으로 출동하여 침입자들을 전멸시킵니다. 단구는 예전에 들어왔던 적군인 미생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죽일 수 있도록 면역을 하며 적군을 공격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긴자의 설교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현재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셔야만 '이긴자'는 희생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에 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체근해본다.* 박태선 기자

피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양과 그 속도에 몸을 지키는 막강한 백혈구가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면 아무리 외세(바이러스)의 힘이 강해도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빈혈에 안 걸리려면 평상시 피가 잘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자연에서 나는 식물들과 신선한 공기를 골고루 잘 섭취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덩치가 크거나 작거나 몸에 필요한 일정량의 영양분이 음식물과 물로 섭취되고, 또 배설기관을 통하여 배출되므로 매일매일 꾸준한 섭생해야 백혈구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은 피의 양과 그 속도에 강한 백혈구가 있어야 어떤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건강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코로나19를 쉽게 예방하고 퇴치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피의 비정상화(면역력 약화)를 초래하는 화학성분과 오염된 공기, 마음에서 오는 나쁜 스트레스로 인하여 쉽게 감염될 수 있는 생태가 조성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와도 근본적으로 건전한 마음과 생활습관을 몸에 배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 놓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만약, 우리 몸에 빈혈이 발생하면 백

김주호 기자

성경들이 맘 잘해도 전지전능을 못 갖추면 이긴자도 구세주도 아니다

2019년 발생했다고 해서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이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고, 그 유래 바이러스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라고 명명되었다. 코로나19는 박쥐 유래 사스 바이러스와 유전자 유사성이 89.1%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미 중국 광둥성에서 사스가 발생(2002년 11월)한 그 당시에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크게 유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스는 전 세계적으로 8개월 정도 유행하다가 감염자 8,000명, 사망자 744명(치사율 10%)으로 마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극히 적은 수의 4명이 감염되었으나 모두 열이 내리고 나왔다.

양심에 털이 났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스 괴질을 막은 구세주가 왜 지금 판데믹(pandemic: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코로나19 괴질은 막지 못하는가?" 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해낼 수 있겠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태풍을 막고 계속해서 풍년들게 하고 공산주의를 없앤 구세주를 고맙게 여기지 못할망정 또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이렇게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인간들은 염치없이 구세주한테 이번 코로나19 괴질을 막아달라고 할 수 없겠다.

구세주께서 공산주의를 없앤 이유는 그대로 두면 제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거의 절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핵전쟁으로 사람이 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세계공산주의



고조선 시대의 꽃무늬 와당 II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고조선 유물의 <꽃무늬 와당>에 새겨져 있는 고대 히브리어(올드네게브 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와당에 새겨진 문자는 모세의 홍해 기적을 묘사한 암각화에 새겨진 문자와 일치한다. - 본지 8면 참조

[Figure 1-6]은 꽃무늬 와당의 오른쪽 문양에 해당한다. 이것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무장한 600명이 신당(a shrine)의 우상을 조롱하자 아해께서 '아멘' 하고 응답하셨다." 이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중대하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단지파에서 구



고조선 천체단 출토된 금빛물 끌레(꽃무늬 와당)하다. 만약에 이러한 증거물이 없으면 에브라임지파에서 단지파가 은신상(graven images of silver)을 강탈해갔을 뿐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priest Jonathan)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고 누명을 씌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와 합세하여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는 마귀장난에 놀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근한 예로 베냐민 지파의 몰살 사건을 들 수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몰살 사건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유다지파에 속한 레위인 제사장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이 성경 사사기(19-20장)에 은폐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진실은 단지파 이동 배정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 참조: 기브아 사건 https://blog.naver.com/pts9228/60184352813



[Figure 1-7]은 <꽃무늬 와당>의 왼쪽 문양에 해당하며,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사장이 그들(단지파 백성)을 보자 함께했다" 여기서 제사장은 성경 사사기 18장 30절에 언급되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from Jonathan)을 가리킨다. "단 지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지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사18:30)*